

금기 깨뜨려 시대가 거부한 13명의 지성인

로저 베이컨, 미카엘 세르베투스, 프란 시스코 수아레스, 오컴의 윌리엄, 갈릴레 오 갈릴레이, 데카르트, 스피노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중세시대 활동했던 철학자들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대에 '이단'으로 몰렸던 인물들이다. 한마디로 '신성한 모독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교황과 교회 권력이 정한 이의의 길을 모색했다는 이유로 가혹한 삶을 살아야 했다.

조선 후기 영남의 유학자 유근휴는 '이학집변(異學集辨)'이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양명학을 비롯해 불교, 도교, 그리스도교를 포함하는 서학까지 '이학(異學)'으로 규정했다. 그는 후손들이 흠여 잘못된 학문의 길로 들어설까봐 염려했던 것 같다. 노자, 장자, 묵자, 순자, 도가 등 성리학의 주변부에 있던 학문에 '이단'이라는 '주홍 글씨'를 붙였다.

당시 적잖은 조선의 선비들의 마음도 그랬을 것이다. 정통은 역시나 공자와 맹자, 주희 혹은 주자였을 터였다. 이들을 거쳐 이항, 이이에 이르는 길이 바른 학문의 길로 치부되었을 터다.

집적전대 성리학의 길 이외의 학문을 추구했던 학자들은 모두 '이학'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단자의 삶은 그 자체로 외롭고 가혹하다. "우리와 다르다"는 말은 그저 '다르다'는 뜻이 아니었다. 영구불변의 진리를 거슬러 그 진리의



유대철 지음

외부에 선 반역자 또는 역사의 방해물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이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은 어떻게 '상식'이 되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말이다. "인간은 이성을 지닌다.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다.",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단에서 정통으로, 반역자에서 선구자로 시대의 편견을 넘어선 철학자들의 연대기를 다룬 책이 나왔다. 중세철학자인 유대철 연구자가 펴낸 '신성한 모독자'는 '중세'라는 사상의 용광로에서 오늘의 '상식'이 탄생하기까지를 들여다본다.

책이 다루는 대상은 중세 철학에만 한정돼 있지는 않다. 저자는 근세 철학자까지 아우르며 '거룩한 이단자'들의 역사를 조망한다.

베이컨·갈릴레이·데카르트·스피노자...

거룩한 이단자들이 찾은 '상식'의 탄생 과정

현대사회는 편견에서 온전히 벗어났는가?

사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은 오늘날에는 확고부동한 과학의 진리지만 당시만 해도 이단으로 폄하됐다. 종교개혁을 주창했던 루터와 칼뱅도 '성서'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코페르니쿠스를 사악한 이학자로 취급했다.

중세시대 이단은 오늘날 생각하는 '사이비'와 같은 종교적 의미와는 달랐다. 언급한대로 당시 이단이란 그리스도교 외부에 있는 '다른 길'이자 '잘못된 길'을 함의했다. "그저 다르다는 말"을 넘어 "도덕적 판단과 정죄로 낙인찍는 것"으로 비화했다. 이단으로 낙인찍힌 이들의 책은 금서로 규정되거나 불태워졌고, 그 자신은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저자는 "로저 베이컨은 경험을 중시하고 관찰과 실험에 근거하여 빛과 무지개의 원리를 밝혀냈다가 '신의 신비'에 대한 인간 이성의 침범이라며 이단 선고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근대 정치철학의 문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 오컴 윌리엄도 이단자로 규정돼 책이 불살라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역설했던 프란시스코

수아레스도 이단의 규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수아레스는 '국제법의 아버지'로 여겨지고 있으며 가톨릭교회 학자나 개신교 학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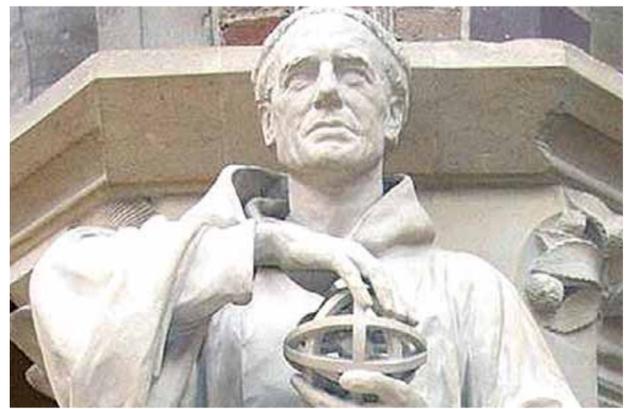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떤가? 움베르토 에코는 현대사회가 합리성으로 무장해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척 하지만 실은 '편견'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지금의 '새로운 중세의 시대'라고 단언한다. 그리하여 책은 단지 "과거에 이러한 이단자들이 살았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당연하다 생각하는 지배적인 사고방식과 시대의 편견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한다.

<추수밭·1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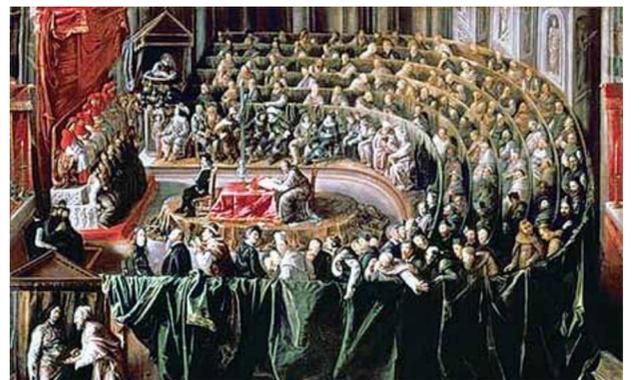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역력

소설가인 박성천 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옥스퍼드 대학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로저 베이컨의 동상.



1633년 바티칸 교황청에서 열린 갈릴레이 재판. 갈릴레이는 '자신이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지구가 더 이상 돌지 않는 것도 아니다'고 생각했다. 브리저먼 예술관 소장 작품. <추수밭 제공>

이순원 지음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요즘처럼 '비상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되는 때도 없다. 평상시에는 출입구가 아닌, 갑작스러운 화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하는 탈출구가 바로 비상구다.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는 말에는 이미 '압구정동'이 비상상황에 처해 있으며,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90년대 한국 소설의 한 정점을 이룬 작가"로 평가받는 이순원의 장편소설이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다. 지난 1992년 발간된 이 소설은 사회를 비판하는 작가의 개성적인 목소리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다. 이후의 자연과 성찰을 매개로 치유의 화법을 구사한 작품들과는 달리 이 작품에는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부패와 타락을 규탄하고 있다.

이순원의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가 26년만에 '대한민국 스토리DNA' 열여덟 번째로 출간됐다. 작품 속에는 매우 급요일마다 압구정동 주민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의문의 '짧은 남자'가 등장한다. 그의 범행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은 성적착증에 걸린 노파, 성전환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양재동 빌라의 방탕한 여대생, 룸살롱을 경영하는 복부인 등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등장한다.

이들을 '압구정동 주민'이라 칭하는 것은 그의 내면이 '압구정동'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타락한 한국식 자본주의 속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시대의 희생자를 넘어 한국 사회 전민자본주의를 재생산하는 종류의 구성원이자 산물로 비쳐진다. 작중 '테러'의 대상으로 형상화되는 이유는 그 때문인 듯 하다.

<새물·1만38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김광규 지음 '안개의 나라'

1975년 '문학과 지성'으로 시단에 나와 삶의 구체적 체험을 평이하고 친숙한 언어로 형상화해온 김광규 시인이 시력 40여년을 결산하는 시선집을 출간했다. 올해 희수를 맞아 펴낸 '안개의 나라'는 깊은 울림과 지적 통찰이 빛나는 시인의 시적 지향성이 오히려 깃들여 있다. 녹원문학상, 김수영문학상, 편운문학상, 대산문학상, 이산문학상 등을 수상한 이력이 그동안의 창작 여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시선집에는 군부의 검열로 배포가 금지되었다 이듬해 발간됐던 첫 시집 '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1979)에서부터 중단 40년을 맞은 해에 펴낸 '오른손이 아픈 날'(2016)까지 총 11권의 시집에서 시인이 자신한 200여 편이 묶였다.

그의 시의 특징은 투명한 이미지와 명징한 서술로 현실의 삶과 시대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데 있다. 시인은 폭압적 질서에 저항하고 삶의 모순과 허위를 짚어내지만, 그럼에도 차분하고 파스한 시선을 견지한다. 외형적 단순성과 내적 비의(秘義) 사이의 긴장을 형성하는 시인 특유의 아이러니 역시 김광규의 작품을 감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시인은 오랜 세월 시인인 동시에 번역가, 문학 교수로 살아왔다. 2001년 저자는 '나의 시를 말하다'라는 산문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글쓰기의 간접적 지표가 되었다"며 "독일 시인 슈테판 게오르케의 비의적 서정시에서 엄격한 언어의 형식을 배우고, 프란츠 카프카의 부조리한 소설에서 난해한 내용과는 달리 즉물적이고 정확한 문장을 사용한 데서 서술의 명징성을 배웠던 것 같다"고 밝힌 적 있다.

<문학과지성사·2만1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무완 지음 '교사, 이오덕에게 길을 묻다'

"우리에게도 교육사상가들이 있다. 그 가운데 으뜸으로 손꼽을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오덕이다. 그는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우뚝한 교육사상가요, 교육철학자요, 어린이문학가, 교육운동가, 우리말 연구자였다."

선생님들 마음에는 우리 땅에 맞는,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 철학과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할 것이다.

'교사, 이오덕에게 길을 묻다'는 우리 교육의 현재이자 미래인 이오덕의 정신을 새롭게 짚어보고 '우리는 왜 애써서 교육을 하는가'를 묻고 또 물으면서 그 답을 교육사상가 이오덕에게서 찾는다. 이오덕은 교육자로, 시인으로, 교육과 어린이문학 평론가로, 우리 말 살리기 운동가로 살면서 우리 교육 문제를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온몸으로 실천했다.

저자 이무완은 춘천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스무 해 넘게 일하다가 지금은 강원도통해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을 돕고 교사를 응원하는 장학사로 일하고 있다.

저자는 이오덕의 교육에 대한 생각, 민주스러운 삶을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교육 목적, 일과 놀이와 공부의 하나가 된 삶이라는 교육과정, 삶을 가꾸는 교육이라는 교육 방법을 두루 살펴봄에, 그의 교육에 대한 생각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서 보여준다. 저자는 또, 우리네 혁신학교들이 지향하는 바가 우리 안에 없던 것이 아니며, 이들 학교가 추구하는 것들은 큰 틀에서 보면 이오덕이 평생 힘주어 말하고 온몸으로 실천해온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한다.

<살림터·1만5000원>

/ 전문기자 ejf621@kwangju.co.kr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